



생물학적 비상사태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생물학적 비상사태란 무엇인가?

세균, 바이러스, 그리고 세균성 독극물이 생물학적 비상사태를 유발하게 된다. 이들은 공기중에 살포되어 음식물을 오염(피독)시키는데 사용되거나 식수에 넣을 수 있다. 또, 어떤 종류는 대인접촉을 통해 퍼져나갈 수도 있다.

생물학적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법은?

텔레비전, 라디오, 또는 비상경보시스템을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. 필요하다면, 배터리-전원 라디오를 갖춘다. 집에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그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말해줄 것이다. 만약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대피 장소를 알려준다.

생물학적 비상사태로 인한 신체적 이상은?:

비상사태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나 독극물에 대한 노출 여부는 곧바로 알 수 없다. 이 경우, 비상사태를 유발한 병원균이나 독극물의 종류에 따라 그 증상 또한 달라진다. 통상, 호흡곤란을 비롯하여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.

생물학적 비상사태의 경우 지방 또는 주정부 공무원들이 예상되는 증상을 알려줄 것이다.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치의에게 전화한다.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들이 통보될 수 있다:

- 옷을 벗어 플라스틱 백에 담는다.
- 그리고, 물과 비누로 몸을 씻는다.
- 이어,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.

생물학적 비상사태 발생후 대처방법은?

텔레비전, 라디오, 또는 비상경보시스템을 계속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.

Ready in 3(“레디 인 쓰리” - 3 단계 대비)은 미주리주(州)의 비상대책프로그램이다. 특히, 본 프로그램은 미주리주 보건 및 고령자 복지부(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)에서 후원하고 있다. **Ready in 3**의 목적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토네이도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. 참고로, health.mo.gov/emergencies/readysin3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